

매튜 S. 하몬 박사, 빌립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 제10강 :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 제2부, 바울 자신 - 빌립보서 3:1-14, BiblicaleLearning.org, 테드 힐데브란트 저

, 저는 빌립보서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열 번째 시간,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오늘은 바울 자신을 통해

살펴보는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 2부"입니다. 빌립보서 연구의 열 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빌립보서 3장 1-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앞선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30절에서 바울은 두 동역자를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로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첫 부분에서 디모테를 소개하고, 그 다음 에바프로디도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과 성품, 행적을 묘사할 때 그리스도 찬송가에서 차용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는 또한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앞선 묘사와도 연결됩니다. 이것이 1부였습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본보기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럼 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나 자신도 육체를 의지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육체를 의지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며, 율법에 관해서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었고, 열심에 관해서는 바리새인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으나, 율법 아래서의 의에 관해서는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그분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들을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분의 죽음을 닮아가고, 어떤 방법으로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이것을 얻었다거나 이미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내가 이미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 구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바울이 일종의 부정적인 예를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기쁨을 누리라는 권면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전한 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는 현재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탁월함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자신의 한결같은 노력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본보기 가 되시는 분 입니다 . 하지만 그분은 자기 자신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또 다른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부르실 것 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도 경고할 것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그는 "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다시 쓰는 것은 내게 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는 유익합니다.

마치 그가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계속 말하는 게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 나는 이 말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기뻐하라 "는 주제 는 빌립보서의 주요 테마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할 때, 그것이 명령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기쁨이 단순한 감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감정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정보다 더 깊은 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뻐하라는 부르심은 일종의 보호책으로 제시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기뻐하라는 부르심을 빌립보 교인들을 보존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특별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 그리고 2절에서 갑자기 화제를 바꿔 거짓 교사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절 끝부분에: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육체를 훼손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자, 그리스어에는 두운이 있습니다. 개, 악인, 신체를 훼손하는 자라는 단어들은 모두 그리스어로 카파(κ)로 시작합니다. 영어로는 이 두운을 살리기가 어렵죠.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이런 시도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한번 해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두운을 살리기 위해 영어로는 "the mutts, the malefactors, and the mutilators"처럼 "beware of" 또는 "look out for"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험하거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빌립보 교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나타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일반적인 경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넓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개는 애완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아, 나도 개를 키우는데, 내 개를 정말 좋아해. 좋은 반려동물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개는 죽은 동물의 사체를 먹는 동물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좋게 생각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악인이라는 생각, 그리고 신체를 훼손하는 자들. 이는 할례가 구원받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다소 직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실제로 '절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서는 그 표현을 뒤집어 대조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운을 사용하여 약간의 수사적 기교를 부리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영어로 '잡종', '악당', '절단자'라고 부르는 이들의 위험성을 명심하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경고이고, 그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할례 받은 자들입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는 바울이 바로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의 본래 의도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 지적하신 것 중 하나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것을 알 마음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마음의 할례, 즉 참된 의도를 갖게 되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그 할례는 단순히 육체적인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모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상관없이, 바로 우리가 할례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셨던 참된 실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라고 부른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전의 주장과 의도적인 대조를 이루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운율을 맞춰 표현하자면, 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러워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의 소망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는 육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생각, 즉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울로 하여금 회심 이전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므로 잠시 멈춰서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는 우리가 행하는 일이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근거로 삼거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음에 우리에게 제시할 내용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가 내세웠을 이력서와 같은 것입니다. 즉, 그가 확신을 두었던 근거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 삶을 살펴보면, 바울이 그랬듯이 그가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신앙심 깊고 경건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아기였을 때 할례를 받을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모든 남자아이는 생후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그 칸에 체크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신앙이 깊으셨고, 모세 율법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둘째, 그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백성의 일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을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받는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셋째,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에서 베냐민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분열되었을 때, 북왕국의 열 지파가 남왕국의 두 지파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북왕국의 열 지파는 점점 더 깊은 배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반면 남왕국의 두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우상숭배에 빠졌으나, 포로 생활 후 일부는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바울의 후손 중 일부는 포로 생활 후 고국으로 돌아와 그들의 입지를 재건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본질적으로 자신은 북쪽 열 지파에 속하지 않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넷째,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히브리어 원어민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순히 그가 지극히 히브리인이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나는 베냐민 지파의 일원이자 후손일 뿐만 아니라, 비록 내 친척들 중 일부는 그리스 문화에 더 심취했지만, 나는 진정한 히브리인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로, 그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율타리 역할을 하는 추가적인 법규들을 엄격하게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구전 전통을 만들어냈고, 그것을 모세 율법의 요구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관하여 말할 때, 그는 언약 안에서 신실한 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 아니 5절, 아니 6절에서 그는 열심에 관하여,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이력서에 쓸 만한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보존하려는 동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행동과 말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까지 불사할 정도로 헌신적이었습니다. 슬라이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본문 6절에 나오는 마지막 구절에서 바울은 율법 아래서의 의는 흠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거기서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걸까요? 율법 아래서의 의, 흠 없는 의 에 관해서 말이죠. 저는 바울이 자신이 죄가 없거나 완벽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 율법 언약 안에서의 속죄 방법을 떠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겉으로 보이는 모든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좋은 평판을 얻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이런 것들을 나열했을까요? 마치 사람들이 자신의 신뢰를 육체적인 것에 두려고 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는 ‘좋아, 나도 그 게임을 할 수 있고, 그들 중 누구든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들보다 내 육체를 더 신뢰할 만한 이유가 훨씬 더 많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울의 배경, 그의 가문은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매우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 중 한 명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완벽한 배경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대 유대 문화계에서 떠오르는 인재 중 한 명으로 분명히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육신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한다면, 내 이력서가 누구보다 훌륭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7절에서 그는 놀라운 전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유익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습니다. 참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탁월함 때문에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탁월함에 대해 바울은 회계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숫자와 회계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 구절이 특히 유익할 것입니다.

위해 이득 칸에 있던 모든 것을 손실 칸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것을 잃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닌, 오히려 좋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교회의 박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명백한 예외죠. 하지만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것, 여덟째 날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그 자체로 좋은 것으로 묘사됩니다.

, 이 말들은 왜곡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온갖 명백한 부도덕에 빠져 끔찍하고 불경건하며 무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것을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는 전반적으로 이것들이 기본적으로 좋은 것들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훨씬 더 위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분이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좋은 것들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그러한 것들은 손실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말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았다면 정말 충격적인 말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는 고통을 겪었고,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쓰레기’는 영국식 표현이죠, 그렇죠?

나오는 것들은 모두 하수구로 향할 운명이야. 그가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건 바로 그거야. 좋은 것들조차도 말이지.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네 부모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러한 좋은 것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좋은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위대함에 비하면 쓰레기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길거리에 떠다니는 오물과 같은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어찌 그녀가 그런 것들에 끌리겠습니까?” 이것이 그의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일부로서, 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십시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가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의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그리스도를 관계적인 의미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도 포함해서 알고 싶어합니다. 물론 관계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즉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능력을 우리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가져오신 그 능력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능력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개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여 나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없애고 나를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좋고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바로 그거야. 부활의 능력이 필요해. 정말 멋진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나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1장 29절과 30절에서 보았듯이 고난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선물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선물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일부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 오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알고, 또 그 부활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는 “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목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루는 것” 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에 있어서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죄와 저주, 죽음 등 그 어떤 것의 흔적에서도 자유로운 새 창조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게 제가 이루고자 노력하는 목표입니다. 저는 끈기 있게 노력하고 있으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는 바로 그 지점에서 12절부터 14절까지로 넘어가서,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에서 그는 11절에서 말했듯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완전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아직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상을 얻기 위해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나는 아직 그곳에 이르지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도록 하는 원동력입니다. 언젠가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확신에 찬 소망을 품고 말입니다. 저는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하는 한 가지 일” 이라고 말하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요약해서 “이것만 이해하면 당신은 올바른 길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 생각에 대해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가 자신을 규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과거가 곧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3장 2절부터 6절까지 자신의 영적 이력, 즉 회심 이전의 이력을 언급한 것은, 우리의 과거가 좋은 나쁜 것 간에,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주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하지만 제 말은 이렇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되면, 우리는 과거의 경험이나 결정, 선택에 대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지금까지도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책감 때문에 거의 마비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도, 우리는 과거에 얽매어 우리가 저지른 나쁜 일이나 우리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좋은 일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문, 혈통, 과거의 업적 등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들에 자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것들을 완전히 기억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3장 초반에 그것들 중 일부를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가 생각하는 바는 그게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우리 삶과 생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가 우리 자신을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과거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영향을 미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추구하는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는 그것을 위로 부르심의 상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문맥상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가리키며, 궁극적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루디의 이미지를 주목해 보세요. 고대 세계의 운동 경기는 오늘날과는 달랐지만, 바울은 그의 글에서 운동에 관한 이미지를 꽤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루디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에서 얻은 예시를 하나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훨씬 젊었을 때, 고등학생 시절에 크로스컨트리 달리기를 5일 동안 했습니다. 코치님께서 알려주시던 작은 요령 중 하나는, 앞에 있는 주자, 예를 들어 10야드나 15야드 앞에 있는 주자를 계속 주시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자연스럽게 속도를 높여 그 사람을 따라잡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을 응시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따라잡기 위해 속도를 높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그리고 달리는 사람으로서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 중 하나는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두 가지 결과 중 하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살다 보면 무언가에 부딪히거나, 예상치 못한 것에 걸려 넘어 지는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이 흐를수록 그분께 더욱 가까이 이끌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바울의 비유입니다.

자,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핵심 아이디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아이디어를 질문 형태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대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않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육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에 대한 자신감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깎아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대한 자신감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의 자신감, 가문, 혈통 등, 그리고 그의 영적인 성취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가문에 대한 자신감이나 우리의 행동에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넘어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고, 부모님은 선교사셨거든요.

좋은 일이네요. 정말 좋네요. 큰 축복이에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우리 부모님이 워낙 신앙심이 깊으셨으니 나에게도 조금은 관대할 거야"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자신감 도 마찬가지입니다 .

음, 제가 젊었을 때는 정말 영적인 일들을 많이 했어요. 결국 육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으로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이란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한 한결같은 추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의 최종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비하면 모든 것을 쓰레기나 잡동사니로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향해 나아가는 일념.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적용점을 살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기를 바라실까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수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추구하세요. 이것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에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확고한 결론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육신에 의지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즉 하나님께서 특정 날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묵상 시간을 갖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고 있어요 .

이번 주엔 정말 잘하고 있어. 하나님이 날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게 틀림없어. 그런데 다음 주가 되면, 아, 내가 성경을 안 읽었구나 하고 깨닫게 돼.

저는 기도도 안 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했어요. 하나님은 이번 주에 저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것은 육체에 자신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 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욕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여정을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 주신 것 중 하나는, 저보다 더 오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신 성도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를 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선하고 즐겁고 여전히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그 간절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십시오.

어쩌면 시간을 내어 그러한 것들을 나열해 보고, 그리스도보다 그러한 현실에 더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고 자신과 같이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매튜 S. 하몬 박사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시리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뻐하라"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가짐의 예, 2부: 바울 자신 - 빌립보서 3:1-14"입니다.